

SK텔레콤, 2005년말까지 시장점유율 합병 당시인 52.3% 이하 유지키로
2004.05.25

김신배 사장 25일 기자간담회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역할 강조
시장쏠림에 대한 일부 우려 해소 및 통신사업자간 소모적 논쟁 종식기대
글로벌시장 개척, 신규시장 창출 및 고객편익 향상에 주력할 것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25일 SK텔레콤 본사 2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5년말까지 시장점유율을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시점의 점유율인 52.3% 이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신배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번호이동 시차제 시행 5개월 동안 시장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혼탁양상이 빚어졌다"며 "번호이동 시차제 이후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일부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합병 이후부터 일부에서 제기되어왔던 시장 쏠림 논쟁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합병인가 시점의 시장점유율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사장은 "타 통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기간을 제공하고, 통신·방송 융합 등 컨버전스 시장이 본격화 되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5년말까지 시장점유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신규중심의 마케팅 정책보다는 기존가입자 위주의 내실정책을 통해 고객 가치, 나아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통신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고 통신시장의 수익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배 사장은 "오늘 발표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제살값이식 혼탁양상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자간 클린 마케팅에 기반한 페어플레이를 펼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통신사업자간에 Win-Win Partnership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및 고객편익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